

“백신 비용 떠넘기기 안돼”... 지자체 반발

내년부터 접종 재원 절반 지방정부 분담 계획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 국가가 책임져야”
 시·도지사협 “전액 국가 지원 촉구” 공동 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절반을 제주 등 지방정부에게 부담 시킬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을 113억8900여만원으로 책정해 '가내시' 했다.

가내시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니 참고 하라고 미리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책정한 113억8900만원은 제주도민 58만여명이 맞을 이른바 '부스터 샷(추가 접종)' 소요 비용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전체 도민(67만4635명) 중 약 86%가 부스터 샷을 접종한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의 절반을 제주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국비와 건강보험료로 마련해왔다.
 코로나19 백신을 한번 접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1만9220원으로 정부는 이 중 30%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70%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제주도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으로 약 57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만큼 국가 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제주도 재정 상황도 빠듯한데 코로나19 백신 비용까지 떠안으면 재정난



손에 잡힐듯 가까이 보이는 차귀도 30일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차귀도를 구경하며 제주에서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이상민기자

선거구 조정 설문조사 이달 중 실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주지역 선거구에 대해 구역 조정 방안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0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

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 백신 비용 부담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명낙대전’ 제주 표심은?

더불어민주당 오늘 제주서 합동연설회·지역 경선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vs 이낙연 ‘반전’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본선을 향한 ‘명낙대전’의 제주 승자가 1일 가려진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 난타호텔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제주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의 제주지역 투표인단은 권리당원 1만3135명, 대의원 191명 등 1만3506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율,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사흘간 자동응답조사(ARS)를 실시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앞서 1차 컷오프와 충청·대구·경북·강원·호남 지역 경선 일정을 거치며 총 4명으로 좁혀졌다.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는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수 66만 8600표 가운데 34만 1800여표를 얻어 53.01%라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34.48%(22만 2000여표)로 2위, 그 뒤를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0.6%(6만 8300여 표), 박용진 의원 1.23%(7900여

표) 순으로 득표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 당원 70만 명 중 제주는 1만 여명에 불과하지만 제주 경선은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 호남 지역 경선 직후 치러지는 만큼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 지사가 호남에서 확인된 ‘대세론’을 굳히지, 이 전 대표가 반전의 불씨를 되살리는 발판을 마련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후보들은 제주 경선에 앞서 제주 민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제주도민들을 만난 데 이어 27일엔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제주를 찾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2차 슈퍼워크), 경기(10월9일), 서울(10월10일/3차 슈퍼워크) 순으로 차례로 경선을 이어간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는 서울 경선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0일 확정되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5일 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4·3과 평화’ 영상 공모... 11월 12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11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회 ‘4·3과 평화’ 영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제주4·3을 다룬 자유영상물(홍보영상, 비디오블로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이다. 연령, 지역에 제한 없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뽑힌 대상 수상작에는 300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최우수상(150만원·2편) 우수상(100만

원·4편) 장려상(50만원·10편)이 수여된다.

참가희망자는 응모작을 개인 유튜브에 올린 뒤 4·3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영상 URL 기재)를 작성해 재단 대표메일(jjp43@daum.net)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단 측은 입상 작품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4·3의 역사적 진실과 평화, 인권, 화해, 상생 등 4·3이 남긴 교훈과 가치를 계승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토·일·월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884
 30일 17시 기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재직자 교육 참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분야	재직자 단기교육과정
기계설비분야	일반용접, 특수용접, 공조냉동기계, 가스, 배관설비 등
전기분야	PLC제어, 시퀀스제어, 신재생에너지, 전기공사 등
전자분야	소방설비, 정보통신, 무선설비, 드론조종, 드론제작 등
자동차분야	지게차운전(3톤미만), 굴삭기운전(3톤미만) 등
디자인분야	영상편집,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스마트웹디자인 등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체 재직근로자
- 해당 교육직종 종사 기업체 재직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재직근로자

특징

- **단기 과정(최소 16시간)**으로 구성
- 참여업체의 재직근로자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기업과 논의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산학협력처 | 연락처 : 064.754.7155, 7157 / 팩스 : 064.754.7113